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무등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음 12월 10일) 제19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따뜻한 '전주형 복지정책' 추진

전주시는 올해 전북지역 4만여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에도 힘을 기울인다.

복합환경국장은 지난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따뜻한 복지도시, 미래형 청정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조성 △깨끗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조성 △청정도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오염 관리강화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동물복지 중심의 생태교육 체험공간으로 도약이다.

먼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의 경우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전북권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 수준의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총사업비 342억원)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사람중심 복지공동체 실현

### 시, 복지·환경·생태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도내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공동체 실현 컨트롤타워 '전주사람' 복지재단 설립키로 아동친화도시 야호 프로젝트 추진

수달 서식지 보전·관리 전주물꼬리풀 복원 관리 강화

에너지 디자인 3040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도

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주사람' 복지재단을 설립, 마을과 주민 중심의 '전주형 동네복지'를 정착시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센터와 발달장애 인턴센터 설립·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삶을 바꿀 인프라를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전주 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 반월동 일원 북부권 복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어르신들의 경제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1만2,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모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주 아이숲 놀이터와 유아숲 체험원, 생태놀이터 등의 놀이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친화도시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선미촌 정비에 따른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조기 정착 지원, 성 평등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건강한 가정이 있는 삶,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출산 축하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주형 저출생 대책도 추진된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전주천과 삼천에 서식하는 수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관리대책을 수립, 기린공원 전주물꼬리풀과 맹꽁이 복원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 디자인 3040'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주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지역에너지 민간협력 사업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북지역의 발생비중이 높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업사이클센터와 리사이클센터 중심의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동물원은 동물별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과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생태동물원이자 생태해설과 교육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백순기 국장은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시행해 온 작지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 미래형 청정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社告

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8년 1월 30일(화)~1월 31일(수)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 ▲주관: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지역: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 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2325가구에 154억원

군지역 수혜자 확대 위해 기존임주자에게도 지원

전북도는 도내 무주택 수급자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전북개발공사, LH공사,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전북도에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이 영구임대, 30년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매년 20억원의 예산으로 250~300여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에는 326가구에 20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325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154억원을 지원하여 별도의 보증금 걱정 없이 입주하는 등 저소득계층 임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이 적은 군지역에 대해서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신규 입주자와 더불어 기존 임주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주민은 우선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통해 임대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 계약을 한 후 관할 시군(주택부서)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하면, 도와 시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전에 임대보증금을 주택공급주체(LH, 지방공사, 시군)에게 대신 납부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제도를 모르고 보증금 부족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신문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소"를

전북시군의회의장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대책도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34차 월례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 건의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는 25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234차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된다며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정책수립이 시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것과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해 국비를 부담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정착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

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은 각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보수체계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면서 자치단체에 자율적인 전환 운영권을 부여하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세계로 뚫는 새연호 기점

# 2018

謹賀新年 행복한 한해 되세요  
GIVE GREETINGS FOR THE NEW YEAR

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